

# 우리말의 보고 이광수 소설의 어휘 한눈에

《이광수 문학사전》 나와

춘원 이광수의 소설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는 어휘와 문장 용례를 정리한 《이광수 문학사전》이 출간됐다. 이 책은 이광수 소설에서 가려뽑은 어휘들을 통해 이미 소멸돼버렸거나 차츰 잊혀져가는 고유한 우리말의 모습을 새삼 확인시켜준다. 특히 친일 소설로 규정돼 소홀히 취급되던 작품들까지 포함해 이광수 소설 어휘의 영역을 넓혔다. 하나의 표제에 따른 다양한 용례를 여러 작품에서 찾아 제시함으로써 어휘를 좀더 깊이 있게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일반 국어사전에서 확인할 수 없는 어휘들의 문맥적 의미도 풀이해 이해를 돕는다.

춘원 이광수에 대한 평가는 아직까지도 긍정과 부정이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의 친일 행위에 무게를 두는 쪽에서는 아예 변절자로 낙인찍어 그를 백안시하는가 하면, 긍정적인 쪽에서는 다양한 장르에 걸친 문학적 성과, 불교·기독교 등을 아우르는 범종교적인 사상의 깊



한승욱 편저  
고려대출판부/A5신/776면/40,000원

이를 높이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광수에 대한 긍정·부정을 막론하고 그의 소설 문학, 특히 소설 문장의 유려함과 어휘의 방대함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는 편이다.

“실로 이광수의 문장은 우리말의 보물창고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어휘나 용례가 풍부하고 비옥하다. 그가 사용한 문장은 마치 큰 강물이 거침없이 도도하게 흐르는 것과 같아 그 흐름이 자재하여 막힘이 없다. 또한 그의 문장을 읽어 나가면 우리가 평소에 쓰는 하찮은 말이나 단어들을 절묘하게 사용해 주옥같은 문장을 엮어냈다는 점에 감탄하게 된다”면서 편저자는 이광수의 문장이 좋은 문장의 전범이라고 평가한다.

이 사전은 크게 어휘편과 부록편 두 부분으로 나뉜다. 어휘편에는 순수 어휘와 인명, 지명, 문화, 역사적 사실 등을 통합해 묶었다. 부록편의 〈구조와 의미〉에는 이광수 소설들의 서사적 짜임과 줄거리, 등장인물의 개략적 성격을 정리했고, 각각의 작품에 대

한 일반적 평가 내용을 소개하면서 소설의 문학적 의미를 간략히 평설해 놓았다. 또한 최근의 연구물까지 포함된 〈이광수 문학 연구 서지 목록〉을 덧붙여 연구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했다. —김정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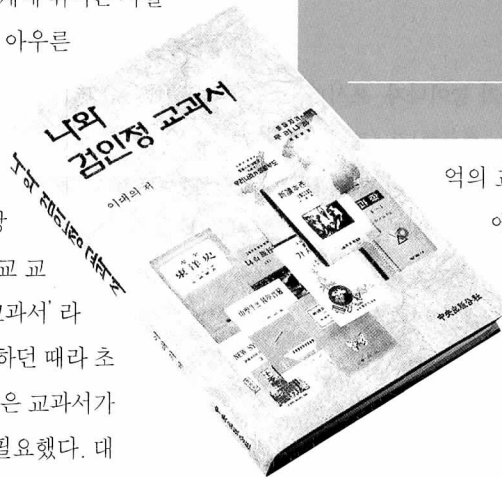
한국검인정교과서발행인협회 초대 회장을 역임한 이대의씨가 검인정 교과서가 걸은 발자취를 한편의 책에 담았다. 그가 광복 직후 출자금 4천원으로 도서출판 동인사를 설립해 출판계에 뛰어든 시절부터 1989년 교과서 업계 동향까지 폭넓게 아우른 이 책은 검인정 교과서뿐만 아니라 지난 50여년간 한국출판의 역사가 오롯이 스며 있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

검인정 제도의 시작은 1949년부터다. 당시 문교부가 그때까지 출간된 중·고등학교 교과서들의 정가를 사정한 뒤, 이를 ‘검인정교과서’라 칭했던 것. 하지만 제작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던 때라 초기 교과서 제작은 많은 난관에 부딪혔다. 좋은 교과서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좋은 원고가 필요했다. 대학교수들에게 청탁을 했지만, 그들은 망설였다. 대학교수가 어떻게 중학교 교과서를 쓰느냐는 게 그 이유였다. 종이의 질적 수준이나 인쇄기술도 여의치 않았다. 당시 가장 많이 사용한 교과서 용지가 갱지였을 정도다.

‘1940~50년대, 우리 출판의 표정’ ‘일본 교과서협회 방문기’ ‘검인정교과서의 변천단계’ 등은 한 출판인의 삶을 넘어 한국출판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짚어볼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사진으로 보는 광복 직후의 교과서들’은 이젠 박물관 진열장 속에서나 만날 수 있을 법한 추

## 검인정교과서 역사에 비친 한국출판계의 표정

《나와 검인정 교과서》 출간돼



이대의 지음  
중앙출판공사/A5신/330면/18,000원

억의 교과서들을 만날 수 있는 장이다. 1946년 정음사에서 펴낸 《중등 조선 말본》(최현배), 1947년 을유문화사가 발행한 영어교과서 《NEW ENGLISH READERS》 등이 그 면면이다. 책 말미에는 그가 경영하던 장왕사에서 출간한 《이상적인 가정생활》(1974년), 《역사 부도》(1975년) 등의 교과서들과 《어린이나라》 등의 잡지, 《밤비》 같은 만화책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최근 한국출판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그 뿌리에 대해서는 모두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한국출판의 뿌리를 생각하게 하는 이 책의 의미는 남다르다. “검인정교과서 업계가 초창기 어떤 환경에서, 어떤 과정을 겪어 왔는지를 증언으로 남겨야겠다는 신념”에서 이 책을 쓰게 됐다는 지은이의 출간동기 또한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박옥순 기자